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9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68)	봉헌 (512)	성체 (500)	파견 (401)
---------	---------	----------	----------	----------

미사 전례 예절

성당에서의 기본 예절

- 미사 시작 20~30 분 전에는 성당에 도착 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여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미사 전의 발성연습과 성가연습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휴대폰을 꺼 놓습니다
-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반드시 성당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를 향해 (대)십자 성호를 그은 후 두손(기도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합니다.
- 여러 차례 성당을 드나들 경우, 대부분의 교우 분들은 성수를 처음에 한 번만 찍고 반복해서 안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성수는 성당에 들어갈 때 마다 매번 찍어야 합니다.
- 성당에서 나갈 때에는 성수를 찍지 않습니다.
- 성당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물이나 음료, 먹거리 등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 단, 특별한 경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주임 신부님 또는 지도(담당)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7/8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15	이 마틸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22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29	이 마틸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65	\$75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공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8/4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7/7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8/11	김 마론/ 김 헬레나
7/14	홍 마르코/ 홍 아녜스	8/18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7/21	김 요아킴/ 고 안나	8/25	황 가롤로/
7/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1	손 아놀드/ 손 쟈마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8 월 2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8 월 12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8 월 19 일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8 월 15 일 저녁 6 시 미사

오는 8 월 15 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의무축일)로 우리 성당에서는 저녁 6 시 미사가 있습니다.

전 요아킴 신부님의 생신 축하 만찬 8 월 19 일(일) 저녁 6 시

신부님 생신 축하 저녁만찬이 히스패닉 공동체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정진민 세례자 요한 | 前 MBC교우회장-

저는 결혼 적령기가 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경구를 떠올리며 확실한 결혼관을 확립하고자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많은 글을 섭렵했습니다. 결론은 '연애와 결혼은 차원이 다르다'였으며,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신붓감의 기본 조건들을 헤아리신 뒤, 선보러 오라고 하시면, 틈나는 주말마다 내려가 선을 보았는데, 열 한 번째 선을 본 아가씨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흔히 말하는 '필'이 꽃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장소를 상의하는 중, 그녀의 가족 중 그녀만 가톨릭 신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취는 교우'였지요. 저는 비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성사'를 고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가 신자였으므로 아무도 제 주장에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올리고, 아들과 딸도 유아세례를 받게 하였지만, 그때까지도 세례를 미루면서 저는 아내를 따라 주일 미사에 가끔 가곤 하였으니, 그야말로 '사이비 비신자'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아내를 통한 하느님의 부르심에도 저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3이던 딸의 사춘기에 대한 저의 불안감으로 저는 딸에게 '함께 교리 받고, 세례 받자'라고 제안하게 되었고, 딸도 흔쾌히 받아들여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에 세례를 받고, '예, 저는 믿습니다'라고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중책을 맡게 되자, 또 신앙생활을 등한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또 다른 부르심

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내가 갑상선암 선고를 받았습니 다. 다행히 초기이고 예후가 좋은 증상이었지만, 아내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피정과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저는 이때 또다시 하느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중책도 내려놓게 되자, 저에게는 '한국 순교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생겼고, 틈틈이 관련 서적과 강의 등을 섭렵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불사한 선조들의 신앙심'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넘치는 사춘기 때 겪은 친구의 죽음이 엄청난 '절망과 허무'를 제게 안겨 주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 선열'의 삶은 바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전형'이며, '그리스도의 영성'을 사모하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총임을 믿기에 앞으로의 제 삶은 감사와 찬미를 더 많이 드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주보 에서-

교리상식 성무일도가 뭐죠?

성무일도(聖務日禱)는 거룩한 직무로서 일상에서 바치는 기도이며, '시간경'이라고도 합니다. 성무일도의 기원은 하루에 여러 번 하느님께 찬양을 올렸던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들도 이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동트는 시간을 아침 여섯 시로 하고, 이때부터 세 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새벽기도 등이 들어갑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간략하게 되어 아침, 점심, 저녁, 밤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